

# 6인 6색 설법잔치 '전법 희망' 빛났다

개척자학교, 7월 14일 10분 설법대회 개최

수료 19명 중 최종 6인 선발  
병고·방황·갈등 주제 다양  
사진, 음악 등 시청각 자료 활용  
"전법 희망 발견한 자리"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부처님 모습을 따라 해볼까요?" "네!"  
강의실을 메운 청중들은 마치 진짜 어린 아이가 된 양 선생님을 향해 해맑게 웃어보였다. 청중들은 6인 6색 강사가 준비한 '10분 설법' 주제에 따라 환자, 어린이, 20대 청년, 군복자, 부부 등 모습으로 분하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뫼다스터디 개척자학교(원장 조화제, 이하 개척자학교)는 7월 14일 서울 장충동 우리 함께빌딩 만해교육관서 '1기 개척강사 설법대회 및 수료식'을 열었다. 17기 개척강사 19명 중 선정된 6인의 개척강사는 각기 다른 대상 및 주제를 선정해 10분 설법을 선보였다.

2차례에 걸친 10분 설법 예비발표와 상호평가 후 대중투표로 선발된 만큼 강의 시작 전 개척강사들 얼굴에는 사투 진지함이 묻어났다. 김재영 법사는 "9개월 간 수련 과정을 통해 개척강사 19명이 처음 탄생했다. 치열한 상호평가를 통해 최종 6인이 선발된 만큼 신선한 설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이남재씨는 '병고'는 지나가는 거센 바람이다' 주제로 입원 중증환자들에게 설법했다. 이남재씨 강의는 환자들이 대한 위로와 공감이 돋보였다. 혈액암이 전이 돼 6개월 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자신 경험을 토대로 환자들에게 기도·명상을 권유했다.  
돌발 상황도 있었다. 3번째 강사 배병태씨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 '나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설법을 시작했으나 준비한 PPT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배병태씨는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발표를 시작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6번째 강사 임정미씨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설정 '그대! 순간의 여행 같이 하시겠습니까?'를 강설했다. 임정미씨는 청중들에게 휴 점토를 나눠주고 작은 그릇을 만들게하여 "누가 빛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휴 점토를 보며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모습을 깨닫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기윤씨는 20대 청년 대상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강연 중 학생들 가까이 다가가 악수를 나누는 열의를 나타냈으며, 민경은씨는 군장병에게 보람찬 군생활을 위한 반야심경 가르침을 실패해 불교 정서를 가장 잘 나타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날 대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처님 되세요'를 설법한 조명숙씨가 차지했다. 조명숙씨는 진짜 어린이를 앞에 두고 강연하는 듯한 어투와 몸짓으로 청중의 물입을 이끌었다. 청중들은 직접 앞으로 나와 부처님 가사를 읽는가 하면 부처님 자세를 몸소 체험했다. 조명숙씨는 "손자에게 반야심경을 자장가로 틀어주고 함께 절에 가

서 이것저것 가르쳐준 경험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던 것 같다"며 "특히나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것이 전법의 씨앗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개척강사로서 용맹 정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금상 이남재·신기윤씨, 은상 배병태·민경은·임정미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심사는 심사위원장 양성홍(전국포교사단 2·3대 단장), 심사위원 임원숙(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씨와 하춘생(동국대 박사)씨가 맡았다. 동국대 하춘생 박사는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각양각색 설법을 준비한 열정에 큰 감흥을 얻었다. 우리 시대 불교가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면서 "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변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이다. 부디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한편 개척자학교는 개척강사와 개척법사 육성을 위해 시작했다. 기초과정 12주·고급과정 12주를 마친 '개척강사'가 되며, 이후 48주 심화과정을 수료하면 '개척법사'로 인정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7월 15일 서울 경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문문화공연장서 제7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식을 열었다.

## "진흙 속 연꽃처럼 어둠 밝히길..." 불교여성개발원, 7월 15일 '여성불자108인' 선정

한국 사회 각지서 부처님 자비행과 보살행을 실천한 108인 여성 불자가 새롭게 탄생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이하 여성개발원)은 7월 15일 서울 경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문문화공연장서 제7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위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포교연구원 이인자 초대위원장 등 역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순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찬란한 빛깔과 정갈한 모습으로 자비로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108인 위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제7차 여성불자108인은 지난 3~5월 후보자 선정을 통해 5월 13일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108인은 선정은 경계 △교계단체 △교육연구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단체 △세무법률 △언론출판 △자원봉사 △정치행정 △표교신행 등 12개 분야서 대사회적 역할을 펼치는 여성 불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날 선정된 여성불자108인은 앞으로 '여성불자 108인회' 일원으로서 불교여성지도자워크숍, 차수별 모임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게 된다.

7차 여성불자108인에 선정된 김귀순(세무법인 부인 대표세무사)씨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불교는 베품의 종교'라 가르치셨다"며 "교리 공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자비행 실천으로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소감을 전했다.  
지원 스님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오늘 선정된 108인 여성 불자들이 진흙 속 연꽃처럼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신도회 이기홍 회장은 "여성개발원은 그동안 6차례 걸쳐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함으로써 여성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계와 불교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면서 "이 성과가 전국 신도 조직 활성화뿐만 아니라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여성개발원이 격년제로 선정하는 '여성불자 108인'은 불교여성 지도자 발굴 및 상호 네트워크 형성, 여성 불자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2003년 처음 여성개발원 산하조직으로 여성 불자 108인회를 결성해 각 전문분야 여성 불자들의 사회적 회합을 이끌어왔다.

박아름 기자



대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처님 되세요'를 설법한 조명숙씨(사진)가 차지했다.



뫼다스터디 개척자학교는 7월 14일 서울 장충동 우리 함께빌딩 만해교육관서 17기 개척강사 설법대회를 열었다. 청중들은 6인 6색 강사가 준비한 '10분 설법' 주제에 따라 환자, 어린이, 20대 청년, 군복자, 부부 등 모습으로 분하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 지키자!

나무상담소, 7월 25~26일 청소년 명상캠프 열어

높은 학구열과 사교육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학교가 문을 연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세첸코리아와 함께 7월 25~26일 오전 10시 서울 불광동 약수정사서 청소년 명상캠프 '마음놀이터, 마음이 놀자'를 개최한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높은 자살율은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명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직관력·인내심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1박 2일 간 스마움 가게·화, 슬픔, 우울함, 질투, 미움을

파는 곳 스마움놀이터에서 마음과 놀기 등 청소년 맞춤 명상 학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성평등 옴부즈맨 활동'도 시작한다. 성평등 옴부즈맨이란 성평등 관점에서 인터넷 광고·기사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인터넷 광고·기사 등 양성평등 관련 개선점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고, 11월 경 우수 옴부즈맨 발표대회에 참가한다.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양성교육은 7월 29일, 31일 및 8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판원빌딩 6층서 실시된다.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

## 동련, 전국어린이연합캠프 개최

7월 31일~8월 2일 하동청소년수련원서

어린이 범죄 인원이 저거나 재판 여건상 어린이불교캠프 개최가 어려운 사찰이 한 데 모이는 연합 캠프가 열린다.  
사단법인 동련은 7월 31일~8월 2일 하동청소년수련원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사정상 어린이불교학교를 열지 못하는 사찰들을 위한 연합캠프로 이뤄진다.  
동련은 "연합불교학교를 통해 어린이 포교의 지역편중을 위한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열악한 지역 포교 활성화 및 사찰 스님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2박 3일간 사찰승의 및 불교문화를 통해 불심과 예절을 함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장주 만들기 △꿈을 찾는 어린이 명상 △부모모든중경사경 등 신행·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이밖에도 △신나는 물놀이 △갯벌체험 △캠핑파이어 등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행한다.  
접수는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또는 팩스(051-864-4665) 송부할 수 있다. 문의(051)864-4569  
박아름 기자

### 제7차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경 제	김정옥 김태연 이연옥 이영주
교계단체	김영이 김옥주 김옥순 이재원 임현주 정선희 조영우 김일명
교육연구	박미례 박현숙 백미나 서현숙 손미영 안주희 이경옥 이도경 이수현 이영미 이민혜 이지량 이희숙 천나미 전진란 정진원 최서윤 최희영 최지은 김미수 김윤옥 김현자 김혜은 변미영 유현주 윤정숙 이규숙 이정숙 임현자 장세윤 조향숙 천현순 최경희 한후남 황미숙
보건의료	강설미 김명숙 김순례 백경숙
사회단체	김규리 노윤희 서옥영 안애원 유인희 이현숙 정지원 한혜원 허남주
세무법률	김귀순
언론출판	전재성
자원봉사	강옥란 경민숙 고익숙 김도연 김옥경 박영옥 서정애 이태희 이현주 황순연
정치행정	권지혜 양채화 조윤애
표교신행	강채순 고미래 김갑연 김선옥 김재란 김한선 김현지 손현주 신용화 신진숙 안순희 이명숙 이명옥 이우신 이종애 이주현 정혜진 정희숙 조창분 최영희 최유정 최유옥 최은주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